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2:6~8)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지난주일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거침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면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또 얼마 전의 튀르키예 지진 참사를 보면서 절대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또 저는 왜 거침없이 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기에, 뭐든 해주실 수 있기에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불가항력의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에 물으신 것이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거침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소망의 열도에 비례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가 지금처럼 미지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하나의 고백부터 들어볼까요?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2:6~7).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4:17) 했고,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렘32:17)라고 했으며,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42:2)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한 마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능히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

에 기울이시는도다”(시34:15), “여호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16:9).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렇게 지대하건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하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미 새도 소리를 뻥

뻥지르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줄

줄 겁니다. 입 안 벌리고 울지 않는 새끼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힘들니까? 병 들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고민입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부르짖어보세요. 울부짖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홍해 앞에서 울부짖은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출14:15), 곧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자마자 면벽하고 울부짖은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사38:3), 앞천 데 달친 격으로 악재가 몰려왔던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욥10:2), 방성대곡하는 하갈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창21:16)이 당신의 부르짖음에, 당신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를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앞세우는 것이 영적 교만이고, 불신 양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했습니다(고후10:4). 그것을 깨트려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모

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

세상의 이론과 논리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것으로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소리쳐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송장이 살아난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뜬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저도 목회 38년 동안 참 많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 가족들이 떠났을 때,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 해외집회 중에 난항을 만났을 때 제가 한 것은 오직 울며 부르짖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세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이요?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삶이 영망진창이고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음 다음의 천국을 논한다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겠습니까? ‘지옥이 이보다 더하겠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4:18).

시편 107편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뜻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겁니다. 예수님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땀방울이 뿜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눅22:44),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답을 옆에 두고 문제를 못 푸는 바보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의 답이고, 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귀가 둔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아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눅18:1~8),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엘리야처럼(왕상18:42), 딸을 고치고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막7:25~30)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응답은 소망의 열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남들이 무식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미련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응답받으면 그만입니다. 축복받으면 그만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11:40)라

고 하셨습니다.

다. 그냥 무식하

게 믿어야 하나님의 영

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

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는 말씀을 토 달지 말고 믿을 때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게 믿는 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내가 잘 나봐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우쭐댄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난 이력과 방대한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해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빌3:7~9).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방성대곡’ 하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요?”라고 따지지 마세요.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구원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은 시한적 존재인 인류에게 전혀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인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이 얼마큼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족을 구원한 것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고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치를 즐기며 걱정 없이 지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나님과 상의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고 몸부림쳤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생각에 호응해주셨다. 열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열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멸하기 전날 밤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갔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강탈하려고 횡포를 부렸다. 그러나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끄집어냈고, 롯의 가족이 멀리 도망가자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

졌다.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지식인이나 발달된 문화와 문명, 풍요롭던 물질도 함께 사라졌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즐거운 것들이 순간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롯의 부인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과 연민이 있던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다. 끝까지 벗어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벧후2:6).

오늘날은 과학도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 그저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눅 21:18). 주님은 택한 자에게는 죽음으로 인해 쓰러져 너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위경 속에서 원수에게 속아 넘어질지라도 죽음으로 인해 쓰러지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생명에 관한 약속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방법인 것이다.

신기류 목사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

전국시대 말엽, 한(韓)나라의 장사꾼인 여불위는 조나라에 갔다가 볼모로 잡혀 있는 소양왕의 손자인 자초를 만난다. 실리에 밝은 여불위는 자초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귀국하여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몇 배 장사가 되나요?”, “많아야 10배겠지.”, “그렇다면 한 나라의 임금을 키우는 것은요?”, “그야 상상할 수 없지.”

여불위는 다시 자초를 찾아갔다. “잘 들으십시오. 정빈이신 화양부인에게 소생이 없어서 부득이 20명이 넘는 서출 왕자 중에서 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중에서 화양부인의 마음을 사는 자가 세자가 될 것입니다.”

여불위는 막대한 진상품을 준비해 화양부인을 찾아갔다. “자초 공자가 마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제가 조나라에 갔더니 이것을 마마께 전해달라고 했습

니다. 이렇게 마마를 생각하는 공자는 없을 것입니다.” 화양부인의 마음을 움직인 여불위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자초를 귀국시켰고, 막대한 재력을 힘입어 그를 세자로 세웠다. 그가 장양왕이고, 여불위는 상국이라는 자위에 올라 엄청난 부귀를 누렸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나며 난리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제대로 투자했음을 말씀하신다. “이 여자가 내 몸

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마26:13).

당신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내가 매일 기쁘게 ::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라

어떠한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어느 날이었다. 기도를 하던 중, 성령께서 ‘생각’에 대한 기도를 강력하게 시키시더니, 근심과 무거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며 머리에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느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던지 밖에서 놀다가 잠깐 기도실을 구경 왔던 아들이 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붙들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다. 총회장 목사님의 저서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가 생각났다. 성령의 생각은 나도 살리고 남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날이었다.

우리가 선과 긍정,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은 결단력의 부족이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곧 영혼과 육체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안다면, 필사적으로 선과 긍정, 생명을 택하게 될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의 1991년도 설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려라’에 나오는 예화이다. 40년 넘게 죽마고우로 지내온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는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부정과 불평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함께 나간 사냥터에서 자기는 쫓 한 마리도 못 잡는다면 여전히 불평하던 친구가 사냥감을 쫓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다.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며 아우성치는 친구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하던 긍정적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총으로 친구의 머리를 겨냥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당장 건져내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주겠다고 머리 위로 총알을 쏘는 친구 앞에, 늪에 빠져가던 부정적인 친구는 “안돼!” 하며 죽을힘을 다해 늪을 빠져나왔다. 총을 쏜 친구를 흡신 두들겨 패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자 긍정적인 친구가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자네의 머리에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자네의 그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사형시킨 것이라네.”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영생과 영멸을 결정짓는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형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자.

이국진 사모

모든 영광, 하나님께

대학원에 입학하고 16년이 흘렀다. 줄곧 경제활동과 병행하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은 나에게 ‘삼쌍둥이’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돈을 버는 데에 집중했다. 더군다나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결혼도 하였고, 사업체를 독립시켰고, 나에게는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전 세계에는 팬데믹이 일어났다.

2020년, 하나님은 여러 고난과 문제들을 던지시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다. 18년을 운영했던 학원을 두 달 만에 정리하면서 ‘빈둥지 증후군’도 생겼고, 좌절과 낙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찍으며 괴로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던 시간이었기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대기로 보호해주셨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아니면 내가 졸업할 리가 없다. 내가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 다윗이 축복받았음을 결론론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

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들이 형을 피해 달아나 사막을 헤매 때, 감옥에 갇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낼 때, 사울에 쫓겨 미치광이 행세를 할 때 정말 축복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견뎌냈을까? 학원을 정리하니 공황장애는 더욱 악화되었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나가려고 했더니 팬데믹으로 움짱달짝도 못하고, 급기야 주일에배를 드리러 교회에도 가지 못했던 순간마다 축복과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내가 알았을까?

솔직히 나는, 살아남는 데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시간이 지나 졸업을 앞두고 보니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신 방식이었음을 안 것이다. 성경 속의 그들도 고난의 시간을 견디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모른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일으키셨고, 훗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라 깨닫는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에 감격하며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훈지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지금은 아닐지라도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은 저와 제게 복을 전해준 언니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나가는 것을 완고히 반대하시는 아버지였고, 유교적 학식이 높으신 터라 마음의 벽이 높으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얼마 전,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며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아버지 뒤를 어르신 한 분이 따라 들어오시더니 “나랑 교회 한 번만 나갑시다!”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극구 사양하시며 그분을 돌려보내셨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은 아버지의 지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꼭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버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몇 번 방문하셨다가 아버지의 완고함에 아쉽게 돌아가셨지만, 사

실 저는 그분의 발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들어 복음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곁을 지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직장 생활, 아이들 육아, 교회 직분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의 구원은 소망하면서, 섬김은 깊어지지 않으려 했구나.’ 그렇게 수술을 잘 받으시고 광주 친정집으로 돌아가시던 날, 광주 예수중심교회 목사님께서 언니와 함께 아빠의 영접기도를 해주셨는데 완고하셨던 아버지가 영접기도를 따라하시며 아멘을 세 번이나 하시

는 모습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신앙 안에 들어오시고 교회에 출석도 하시는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지만, 아버지의 ‘아멘!’은 저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한순간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서서히 맺히기도 하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함에 낙심치 맙시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거둬드릴 열매가 아니라 해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는 분명 열매 맺을 것이기에, 오늘도 씨를 뿌리고 섬김을 다하는 모든 분들의 발길과 손길 위에 진심을 담은 위로와 축복을 보냅니다.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5).

하인명 집사



튀르키예를 돕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22494
농협 1379-01-001903

Good News

새해를 맞이하면 해돋이 명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떠오르는 둥근 달을 보기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해와 달을 보면서 한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천지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인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일월성신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비는 자들은 천하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천지만물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정하시고, 강과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소식입니까?

상화평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항생제, 항암제보다 더 좋은 약은?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아~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 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병원 MD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NK세포)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천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

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 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 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럼 감사하세요. 걸어 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Dr. 설재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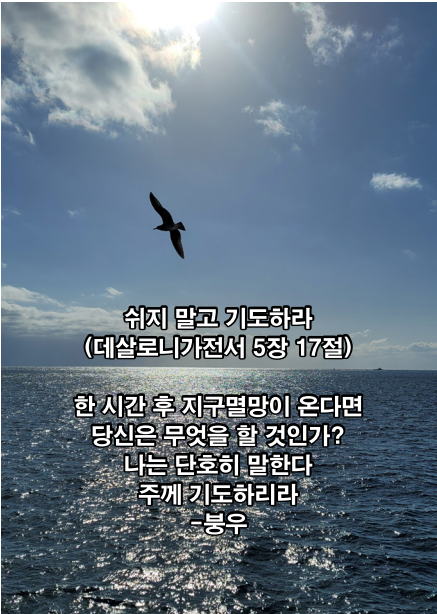
글로벌 인사이트

얼마 전 대학원 수업에서 카트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장을 보는 한 여성의 신선한 쇼핑법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곳은 허마셴성(金馬先生:허마선생)이라는 중국 최대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최첨단 오프라인 슈퍼마켓으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이다. 여성은 이곳에서 사려는 품목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었을 뿐인데, 스마트폰으로 제품의 원산지, 유통과정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제품들은 그녀가 담지 않았지만 계산대 입구 그녀의 카트에 모두 담겨있었다. 이후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방금 구입한 물품이 그녀가 도착하기 전 집에 배송되었다. 내가 마트에서 킁킁대며 카트에 물건을 담고, 포장을 하고, 주차장까지 어렵게 가져가서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QR코드만 찍었을 뿐인데 우리 집에 내가 아까 장본 야채나 생선 등이 도착해있는 것이다.

‘허마셴성’은 장을 보면서도 귀찮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며 당일 신선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잘 공략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구현한 브랜드인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인간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창조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2019년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한 ‘허마셴성’의 첨단 유통구조를 보면서 ‘맞다! 더 혁신적인 생각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창조주(Creator)를 믿는 창작자들(creators)인데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번에 설을 맞이하여 편의점에서 벤츠 E클래스를 판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만 파는 줄 알았는데, 1억이 넘는 자동차를 판다니 생각의 틀을 깨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다. 성경에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놓은 친구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뿔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도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부서에서, 나의 교구에서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처치를 실현하고 계신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 ‘글로벌 인사이트’를 가진 예수중심교인들이 되자.

송현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시간 후 지구멸망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단호히 말한다
주께 기도하리라
-봉우-